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갈등

시민단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수용을”

시민권익위
“공론화위원회 먼저 구성해야”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민단체와 논의에 나선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화중단을 선언하고 시민단체는 광주시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10년 넘게 논의해 온 2호선 건설에 대해 이용섭 시장이 ‘공론화’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이 같은 갈등은 예고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6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모임은 최근 최영태 시민

권익위원장 주재로 3차례에 걸쳐 광주시 관계자들과 지하철 2호선 공론화 관련 준비 회의를 했다”며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시민모임이 주장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고 대안을 내놓지도 않아 공론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모임과의 대화에서 이용섭 시장이 주문한 ‘공론화위원회 선(先) 구성, 찬바람 불기 전, 9월 말 10월 초 결정’을 거듭 주장해 ‘숙의조사’를 요구한 시민모임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이날 회견에서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라는 광주시의 입장만을 강권하는 편향성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대화중단을 선언했다”며 “미리 준비한 공론화위원 후보 명단을 제시하고 시민모임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도대체 숙의 과정이 없는 공론화가 가능하냐 한 것인지 광주시

와 시민권익위원회에 묻는다”며 “숙의 과정을 통해 지하철 2호선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시민여론이 건설반대로 풀릴 것을 미리 두려워하기보다 다시 한번 정책 결정에 앞서 진정한 시민의 뜻을 구하려 하는 겸손하고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영태 위원장의 대화중단 사과와 일방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안 취소, 지하철 공론화 과정에 표본 시민의 직접 참여와 학습·토론 기회 보장, 이용섭 시장의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준비를 위한 직접 대화 등을 요구했다.

회견을 마친 이들은 광주시장실에서 이용섭 시장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한동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민권익위원회와 시민모임의 대화가 중단됨에 따라 지하철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찬바람 불기 전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봉재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1통에 20kg ‘무등산 수박’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청과매장에서 모델이 울며 처음 출하된 광주 대표 명물인 ‘무등산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 산기슭에서 재배되는 순재래종 수박으로 다른 수박보다 더 달고 시원한 맛을 지녀 예로부터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품이었다. 가격은 20kg 1통 38만원이다. /광주=봉재영 기자

진도 박준범씨, 태극기 사랑 실천

10년간 365일 태극기 게양
2015년 ‘태극기 마을’ 선정

애국(愛國)·애족(愛族)·애향(愛鄉)을 몸소 실천하는 진도주인이 있다. 그 주인공인 진도군 군내면 송산마을에 사는 박준범씨. 그는 10여년간 365일 태극기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관리하고 있다.

송산마을은 진도를 대표하는 항일 독립지사박종식(1911~1948) 선생의 고향이다. 그는 지난 1993년 건국 45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 투쟁의 공훈으로 건국 포장을 서훈 받았다. 박지원 국회의원이 박종식 선생의 아들이다. 박종식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을주민들과 향우들은 집집마다 거리마다 100여개의 태극기를 게양하고, 추모비를 건립 했다.

목포보훈지청은 2015년 송산마을을 태극기 마을로 선정했다. 7년 전 작고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설들을 관리하고 있는 박준범씨는 제



진도군 군내면 송산마을 박준범씨는 10여년간 365일 태극기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관리하고 있다.

73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폭염 속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아내며 태극기 교체 작업을 벌였다.

박준범씨는 “2009년 3월 1일부터 관리를 시작해 내년 3월이면 만 10년째이다”며 “앞으로 78세까지 산다고 계산하면 20년을 더 해야 할 일이지만 나라와 민족, 후손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겠다”고 웃어 보였다. /진도=김남중 기자 5555knj@

아시아 최대 ‘K-뷰티엑스포 홍콩’ 개막

20일까지 ‘홍콩컨벤션센터’서
경기도 16개사 등 27개사 참여



2018 K-뷰티엑스포 홍콩.

아시아 최대 화장품 수출입시장이자 한국화장품 수입점유율 1위, 홍콩 뷰티 시장 진출을 위한 ‘2018 K-뷰티엑스포 홍콩(K-BEAUTY EXPO HONGKONG)’이 16일 개막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홍콩컨벤션센터(HKCEC)’에서 열린다.

박람회에는 경기도 기업 16개사를 포함한 국내 유망 뷰티기업 27개사가 참여해 화장품, 에스테틱, 헤어, 바디케어, 네일, 미용기기, 미용의료 등 다양한 품목을 출품한다.

공, 공항, 전시장, 숙소 이동 시 셔틀버스 무료 운행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유망 바이어 50개사와 200회 이상의 1:1 맞춤형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롯데홈쇼핑 본사도 직접 부스로 참가해 16~17일 양일간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롯데홈쇼핑 입점상담 및 기업수출 컨설팅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홍콩은 한국 화장품 수입 점유율 1위 시장으로 이번 K-뷰티엑스포가 대한민국 유망 뷰티 기업들의 중화권 시장 진출 교두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박람회 기간 동안 바이어 수출상담회 지원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고성철 기자 ksc@

보성군 전남체육대회 엠블럼 등 상징물 공모

보성군이 내년 4월 개최되는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엠블럼, 마스크트, 포스터, 구호, 표어 등 5개 부분의 상징물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심사 기준은 보성의 전통과 역사, 문화, 비전을 보여 줄 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는지, ‘녹차수도보성’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축제 한마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지, 전라남도 상징물과 개최지 보성군의 상징물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본다.

전남체전 조직 위원회는 응모가 마감되면 별도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상징물 선정 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당선작 발표한다.

응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육상, 테니스 등 총 22개 종목으로 개최되며, 선수단 및 방문객 3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전라남도 최대행사이다. /보령=김남중 기자



김성기 가평군수(좌측에서 네번째)

/가평군

친선축구대회 성금 보훈단체에 전달

가평 축구동호회 4개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제11회 보훈단체가족돕기 친선축구대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을 보훈단체에게 전달해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하고 신선함을 더했다.

가평군 축구동호회 4개팀(자이언트 F.C, 가평 50대 대표, 상면 F.C, 500 타이거즈)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10

일 가평군 청평면 소재 상천 에텐타운 축구장에서 친선축구경기를 펼쳐 모금된 430만원을 16일 보훈단체에게 전달했다.

성금전달식에서 김성기 군수는 “이 성금은 조국을 위해 희생해온 보훈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자”고 감사를 표했다. /경기=고성철 기자

인천지하철에 ‘힐링 메시지’ 바닥에 랩핑·QR코드 이벤트

인천시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에 힐링 메시지를 담은 광고와 이벤트를 진행해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살핀다.

시는 올해 말까지 인천 지하철 1호선 한량(5호) 바닥면 전체를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로 랩핑하고, QR코드 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랩핑 광고 메시지는 ‘오늘도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내 어깨를 토닥여주세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 문구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바닥의 QR코드를 읽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마음 건강 메시지를 적어 응모하면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마음 건강 메시지를 되새겨보며 마음 건강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

여수시 지역청년 창업비 1900만원 지원

여수시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 성공을 위해 한명당 1900만원 정도의 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초기) 청년창업자에게 지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창업 지원금은 1인당 1500만원 상당으로 역량 강화비와 상품화 개발비, 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창업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등으로 4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10명(팀)으로 일반 창업

과 관광 분야로 나뉘 각각 5명(팀)씩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이달 13일 기준으로 만 19~39세 이하로 여수시에 거주해야 하며,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뿐 아니라 창업 후 1년이 안 됐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4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서류와 서식 등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 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여수=김남중 기자